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기초선원 가을안거



동화사(주지 무공) 기초선원(선원장 진허) 가을안거 개인식이 9월21일 동화사조실 진제스님을 비롯해 강사스님, 사중스님, 기초선원생 9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법전에서 개최됐다. <사진>

10월19일까지 열리는 안거는 상우 원용 무비 무여 법산 진허스님 등 강지도 함께 한다.

태고종

사찰신도회 간부 연수

총북종무원(종무원장 대연)은 9월23, 24일 이틀간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종무원 산하 사찰신도회 간부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포교방법론, 21세기를 대비한 불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이를 주제로 토론으로 진행됐다.

약수암 대응전 낙성

진천 약수암(조실 잠원만)은 9월21일 대응전, 삼성각, 사천왕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을 가진 각 전각은 대응전 22평, 삼성각 8평, 사천왕전 10평 규모에 전통목조양식으로 지어졌다.

천대종

종단간부 中 국청사 방문

도용 종정스님과 윤덕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 10여명은 중국 천대산 국청사 창건 1천4백주년 및 5백나한당 기광(開光)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중국방문단은 8일 법요식에 참석하는 외에도 10일간 머물며 영과 전등사 순례 및 지자체 사찰 열반자 향주 신창대불사 등 성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 개운사 기공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 될 개운사 기공식이 총무원장 윤덕스님과 종단간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23일 성남

분당구 오리동 개운사 공사현장에서 열렸다.<사진>

7천여평의 부지에 세워질 개운사에는 2층 규모의 전통양식을 갖춘 법당과 3층 규모의 요사채, 지관전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회관과 탑, 전각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건립된다.

진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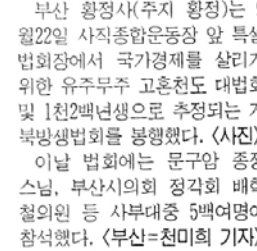
대구 밀교문화대학 개설

진각대학(학장 석봉정사)은 부설 대구교구 밀교문화대학을 개설, 9월30일 대구 진각문화회관 7층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다. 종단 교양대학으로는 서울지역에 이어 두번째인 대구 밀교문화대학은 1년과정으로 진각종학, 밀교학, 불교학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053>255-1450

대한법회종

고촌천도·거북방생법회

부산 황정사(주지 황정)는 9월22일 시작종합운동장 앞 특설 법회장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주무주 고촌천도 대법회 및 1천2백년생으로 추정되는 거북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법회에는 문구암 종정스님, 부산시의회 정각회 배화철의원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용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보인)은 7일 오전 11시 제향군인회관에서 국제보살계 수계 법회회를 봉행한다.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하게 될 이번 대법회는 1부 수계법회에 이어 2부 영산대제 순으로 진행되며, 일본, 대만의 스님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입력 분지 24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에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교TV '새벽예불' 신선한 감동



◇방영과 더불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불교TV '새벽예불'. 해인사 새벽 예불을 생생하게 담아낸 '새벽예불'은 불교TV의 가을개편 신설 프로그램이다.

"뜻 알고보니 신심 절로 우러난다" 예불문 자막풀이 '호응'...저녁예불도 검토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사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삼계의 스승이요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매일 아침 6시10분 가야산의 정적을 깨우는 도량식으로 시작해 45분간 진행되는 해인사 새벽예불이 불교TV에서 산사의 새벽을 신선한 감동으로 전하고 있다. 불자들에게 불교TV를 통해 해인사 예불에 동참해 아침 예불의 정음함

을 몸소 체험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9월22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새벽예불'은 '저녁예불'과 함께 가정이 곧 청정도량임을 일깨우며 예불의 생활화를 이끌고 있다.

'새벽예불'은 도량송 타고명종 오분향례 반야심경 등으로 진행되는 예불 의식을 한글 자막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며 '저녁예불'도 자막방송을 할 계획. 그래서 뜻도 모른 채 예불을 암송

해온 불자들에게는 예불문의 뜻을 자세히 새길 수 있게 돼 예불의 현대화와 올바른 수행생활에 한몫하고 있다. 예불에 이어지는 영상 나르바는 예불을 마친 후 5분동안 참선의 시간을 제공해 부처님께 예불 후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던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벽 예불을 편성하게 됐다"는 불교TV 제작진은 "방영하자마자 이처럼 폭발적인 시청자의 호응을 받게 돼 놀라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아침마다 TV를 통해 아침예불에 동참하고 있다는 박성막(52·서울 목동)보살은 "뜻도 모르고 따라했던 예불문들이 한글로 해석돼 나오는 것을 보니 확신이 절로 일어난다"며 앞으로도 계속 새벽예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월정사 1군사 불자 수계

오대산 자연정화 활동도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6일 제2회 군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월정사는 1군사 군법당 범용사와 수계법회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1부 수계대법회를 비롯 오대산 인근의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년 처음으로 실시된 군불자수계법회는 8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는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며 차후에는 이와같은 불성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단을 배포한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작성했다.

관음사 '마음의 질' 개원 시민선방 등 도심포교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가 서울 포교단 마음의 질(주지 세동)을 27일 개원, 본격적인 도심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개원된 마음의 질은 어린이, 학생, 청년, 가족법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선도활동(상담실운영), 정기적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발간, 불교교양대학, 시민선방,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또 도제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및 각종 교육봉사도 실시한다. 초대주지 세동스님은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와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도심포교단의 새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포교법 개발과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전 불교음해 목사 '사과'

불교음해전반법포를 불의를 빚었던 대전 중앙성결교회 이재섭 담임목사가 9월 13일 대전사암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공식 사죄했다. 이날 이재섭목사는 "전단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불교를 비방한

현해탄서 선상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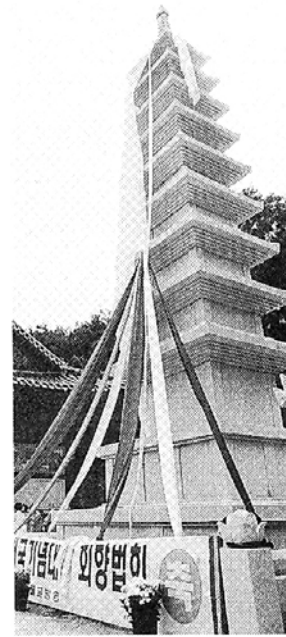
정유재란 희생원혼 달래

정유재란 발발 4백주년을 맞아 당시 희생자들이 끌려갔던 현해탄에서 '선상천도대제'가 봉행됐다.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는 9월25일 부산발 일본 후쿠오카행 여객선 선상에서 정유재란때 코가 잘렸던 호생자 원혼 2만4천여위를 천도했다. 이날 천도제에는 해철스님 등 8명의 승려가 법례의식을 펼치는 가운데 광주 이상준 무용단과 창원대 무용단이 살풀이 춤을 추며 원혼들을 위로했다. 자비사측은 "이번 천도제는 정유재란의 교훈을 되새기고 당시 코가 잘렸던 희생자들의 무고고혼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방송 대담 8년만에 제막

관음사에서 회향법회

불교방송 개국기념 대담 제막식이 9월24일 관음사에서 3백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불교방송 개국을 기념하기 위해 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90년부터 추진됐던 대담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엔 준공됐다. 명부전 대강당 신축등 관음사 20년 중창불사 회향법회와 같이 봉행된 이날 제막식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지하(중앙승가대 총장)·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직무대행)스님과 서문각(불교방송 사장



◇관음사에 세워진 불교방송 대담 대담은 가로·세로 5m·높이 18m의 9층석탑으로 3억4천여만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신라문화원 사단법인 승격

김주락 변호사 이사장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30일 황실호텔에서 신라문화진흥원 승격 및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김주락변호사(44)가 초대이사장에 취임했다. 93년 3월 개원한 신라문화원은 지난해 겨울 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의결, 7월24일 문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편 신라문화진흥원은 7일 서라벌문화관에서 사단법인 승격 기념 해국스님초청법회 및 제불점안식을 봉행했다. 신라문화진흥원측은 제불봉안과 관련 "그동안 이외 법회시 제불이 없어 법단을 제대로 마련치못해 안타까웠다"며 "대규모 야외법회사용을 물론 대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단신

BBS 대선후보 초청 대담

불교방송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8시에 대담후보들을 초청 정병조 교수(동국대 부총장)의 진행으로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특별대담시간을 마련한다. 대담 일정은 6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시작으로 7일 국민회의 김대중, 8일 자민련 김홍필, 9일 민주당 조순, 10일 이인제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불교방송은 11월 초순에는 흥사단과 공동으로 7~8명의 패널 리스트가 참석하는 대선후보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불교TV 5차 주식 공모

불교TV는 10월1일부터 5차 주식 공모에 들어간다. 내년도 전국시청권시대 돌입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불교TV는 지난해 태극대만 등지의 불교채널 개국으로 프로그램 수출등 영상사업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12월15일까지 모집하게 될 이번 주식공모 예상 총액은 60억원이다.

bn 영상물 군포교 한류

불교TV의 '한국의 명절' '다큐멘터리 티벳' '한국불교문화유산특집' 등이 학교등 공공단체에서 시청각 교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 영상포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군법당과 군부대 약 30여곳에 불자들의 보시를 통해 배포된 영상자료는 군불자들의 초발심을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불자가수 이자연 자선공연

불자 트로트 가수 이자연씨가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이씨는 9월5일 오지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선공연을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맡은 데 이어 9월15일 오지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선공연을 갖고 수익금과 위문품등 1억3천여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BBS 노조장 박명한씨

불교대구방송은 최근 노동조합 결성식을 갖고 보도국 박명한 기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노조 창립법회는 10월중순경 가질 계획이다. 불교방송 노조 대구지부에는 PD와 기자, 엔지니어 등 8명이 가입했으며 연말까지 10명선으로 조합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불교방송 노동조합은 부산, 청주에 이어 대구지부가 결성됐으며, 광주 지부만 결성되지 않았다.

불국정토(佛國淨土)가 우리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 玉은 人間이 大自然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玉에서 얻을 수 있는 氣力은 가이 神秘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 海光企劃이 옥불(玉佛)조성으로 21세기 불교문화의 새장을 열겠습니다.
- 대불(大佛), 108불, 1천불, 3천불, 1만불 조성 문의요망

海光企劃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원당 B/D 203호
TEL : (02)739-4872~3 FAX : (02)739-4874

